

EU의 DDA 농업협상에 대한 입장

12월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홍콩 각료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 각료회의에서 발표될 각료선언문 최종 초안에는 이미 관세 상한, 관세감축, 국내보조 감축 부문에서 이미 상당한 합의와 진전을 이루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협상의 결과에 따라 각국의 득실이 크게 달라질 것은 명백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작지 않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협상의 중요한 축 중 하나인 유럽연합(EU)의 현황과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U 집행위원회가 2005년 12월 11~14일 중에 발표한 내용을 정리·소개하고자 한다.

1. EU의 농업 현황

1.1. 농업생산 현황

EU에는 1,100만 명의 농민이 있고, 2007년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가입하면 1,4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에는 200만 명의 농민이 있다.

EU 농민의 평균 수익은 시장 왜곡적인 지지를 받는 미국 농민의 평균 수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EU는 1992년 이래 전 부문에 걸쳐 지지가격을 삭감해 왔고, 가장 최근

의 사례는 설탕 부문 개혁이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지지가격은 과거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했다. 예를 들어 EU는 1992~07년 동안 밀 지지가격을 42% 감축할 예정이지만, 미국의 밀 지지 가격은 1992년 이래 35% 상승했다.

2003~04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통해서 직접지불제의 90%를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했고, 이는 이 지불금이 'green box'에 속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시장 왜곡적인 보조 방식을 가장 덜 시장 왜곡적인 방식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WTO가 요구하는 바와 합치한다.

미국의 지지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시장 왜곡 정도가 심한 경기 대응직접지불제(counter cyclical payments)는 2004년 11억\$에서 2005년 42억\$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마케팅론(marketing loan)과 긴급지원금(emergency payments) 역시 각각 2004년 38억\$, 6억\$에서 2005년 62억\$, 37억\$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의 보조금 수준이 1년 만에 55억\$에서 141억\$로 250%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1.2. 농산물 교역

EU의 지지를 받는 농산물의 순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감소해 왔다. 이는 공동농업정책이 효과를 발휘함과 동시에, EU의 생산량 감소와 자체 소비량 증가가 맞물린 결과이다.

EU는 쇠고기의 순수입국이었다. 최근의 설탕 부문 개혁의 결과 유럽 연합은 세계 2위의 설탕 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입장이 바뀔 것이다.

EU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 2004년 농산물 수입액은 616억 \$ 상당이었다.

EU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산물 수출 중 85%, 라틴아메리카의 농산물

수출 중 45%를 수입하고 있다. 이는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의 수입량을 합한 것보다 많은 양이다.

EU는 ‘Everything but Arms’ 정책¹⁾에 따라 전 세계 49개 최빈개도국으로부터 무기류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해 부고 있다. 2004년 EU가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총액은 32억\$ 규모로 여전히 세계 최대이다.

1.3. EU와 개도국

최근 개정한 특혜관세제도(General System of Preferences)로 총 178개 개도국과 지역이 수혜를 받고 있다.

EU는 전 세계 무역발전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2001년부터 EU는 7억 5,000만€ 상당의 무역발전지원금을 출연해 왔다.

1.4. EU의 기대

EU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타국이 준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미국의 경기대응직접지불제 억제
- 미국의 식량원조와 수출신용 프로그램 개혁
-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의 국영무역기업 개혁
-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관세 감축 균형
- 지리적 표시(geographic indicators) 보호 제고

1) 2001년 2월 26일 EU가 최빈개도국의 모든 상품에 대해 일체의 관세와 쿼터를 폐지한 조치를 말한다. 이 조치를 통해 EU는 최빈개도국의 대 EU 시장접근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일부 유예를 부과하였던 바나나, 설탕, 쌀도 2009년까지는 무관세, 무쿼터 수입이 보장될 방침이다.

2. 세계농산물 시장에서 EU의 역할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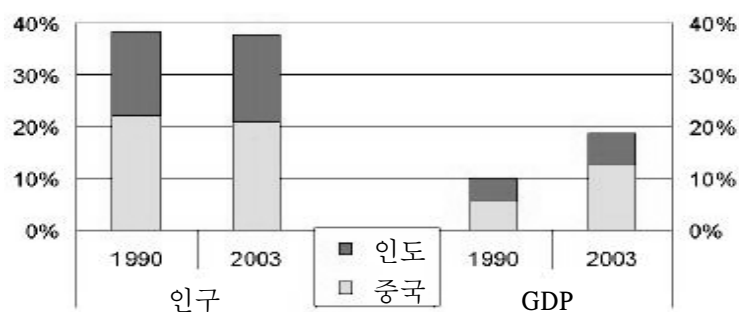
2.1. 거시적 분석틀

세계농산물 시장 전망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인 중 특히 중요한 세 가지 변인은 인구, 환율, 그리고 GDP 성장이다. 이 변인들은 국가와 지역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 중 인구는 가장 예측하기 쉬운 양상을 보인다. GDP 성장은 인구보다 예측하기가 다소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손쉽게 가정을 세울 수 있다. 하나 이상 수출국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약화시키는 환율 역시 어느 정도 이상의 확실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절에서는 거시적인 변수들을 상세히 다루는 대신, 1990년 이후 가장 발전한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성장 정도를 도식화하겠다.

그림 1 세계 인구 · GDP에서 중국과 인도의 비중



위의 그림은 세계 인구와 GDP에서 중국과 인도(합계)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1990년 이래 인구는 소폭 하락한 반면 GDP는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15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GDP 비중이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점은 세계 교역에서 이 두 국가의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두 국가가 세계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부문에 비하면 아직 미비하지만, 앞으로는 영향력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부터 상세히 다룰 것이다.

2.2. 곡물 부문

곡물(쌀 제외)은 평균 생산·소비량이 13~14억 톤으로 수확 면적과 생산량, 교역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특히 밀과 옥수수는 이 부문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규모가 큰 탓도 있지만 곡물 부문은 변화가 적은 편이다. 연간 곡물 소비량 성장률은 1980~1992년 동안 매년 1.2% 수준에서 1992~2002년에는 매년 0.8% 수준으로 소폭 둔화되었고, 일인당 소비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곡물 생산은 대체적으로 소비 패턴을 따르고 있고, 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확 증대 덕분에 생산 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을 충족시켜왔다. 지역 간의 커다란 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격차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단위 생산량은 아프리카의 3배였으나, 최근에는 5배에 이르고 있다.

곡물 교역은 2억 톤 수준에서 상당히 심한 진폭을 보이고 있고 일정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최대의 수출국이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줄어들고 있고, EU의 점유율은 더욱 많이 감소했다.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등 기존 수출 국가와 신흥 수출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2.1. 밀

밀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통상 6억 톤 정도로 곡물 생산량과 소비량의 45% 정도를 차지한다. 1인당 밀 소비량은 1980-1992년 동안에는 증가했으나 1992~2002년에는 감소했다. EU의 연간 밀 소비량은 1980~1992년 1.1% 증가에서 1992~2002년 3.8%로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사료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밀 생산량도 1980~1992년 2.6% 증가에서 1992~2004년 1.1%로 둔화되었고, 생산지역도 감소했는데 특히 북아메리카, 구 소비에트 연방, 중국에서 두드러진다. 하지만 연간 수확량 증가가 소비량 증가분보다 커서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

밀 교역 비중(17%)은 다른 곡물보다 높은 편이고 매년 조금씩 교역량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EU와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반면, 흑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국이 등장하고 있다.

2.2.2. 옥수수

평년 옥수수 생산량과 소비량은 6억 2,000만~5,000만 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어, 밀과 유사한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밀과 달리 옥수수의 1인당 소비량은 1980~200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80~1992년 동안 소비량이 감소 추세(-2.8%)를 보였던 EU에서조차 1992~2004년 소비량은 크게 늘어났다(3.7%).

재배 성공으로 수확량 증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1992~2004년 생산량 증가는 더욱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유전자변형(GM) 옥수수의 도입으로 다른 사료 작물보다 적은 비용으로 재배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산출 증가율이 소비량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배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생산 증가가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다.

옥수수 교역은 증감 폭이 매우 커서 1980~2004년 사이에 교역량이 8,000만 톤에서 6,000만 톤으로 줄었다가 다시 8,000만 톤으로 회복되었다. 옥수수의 교역 비중은 12%에 그치고 있고, 미국이 가장 중요한 수출국이다. 아르헨티나가 그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고, 다른 수출국(중국, 남아프리카, 브라질)은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 이따금 수입을 하기도 한다.

2.2.3. 곡물 전망

미국식량농업정책연구소(FAPRI)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두 세계의 밀 교역이 생산·소비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가 미국의 밀 수출이 현행 2,500만 톤에서 2014년 3,3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FAPRI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2,600만 톤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다른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는 비슷한 전망을 내 놓았다. 호주는 계속적으로 세계 2위의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2014년에는 수출량이 2,200~2,300만 톤(현재 1,400~1,5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캐나다의 수출량도 현재 1,600~1,700만 톤에서 1,800만 톤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수출량도 2004/05년의 900~1,000천만 톤에서 2014/15년 1,400~1,500만 톤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EU의 경우는 앞으로도 1,000~1,200만 톤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러시아는 4년 전부터 순수출국이 되었지만 두 기관 모두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700~800만 톤의 밀을 수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크라이나와 동부 유럽은 현재 수준(300~400만 톤)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OECD가 인도의 수출 증대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반면, FAPRI는 앞으로 수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아르헨티나의 수출 증대분 중 절반 정도는 브라질이 수입할 것이고, 브라질의 수입량은 현재 480만 톤에서 2014년 68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다(FAPRI). 멕시코 역시 밀 수입을 현재 350만 톤에서 450만 톤(FAPRI)~550만 톤(OECD)까지 늘릴 것으로 보인다. 2005~14년 중국의 연평균 밀 수입량은 700만 톤(FAPRI)~850만 톤(OECD) 정도로 추산된다.

2.3. 쌀

2.3.1. 쌀의 생산·소비·교역

쌀은 주요 곡물이지만 생산량 중 교역량이 적고 주요 수출·수입 지역이 아시아로 국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편이다. 아시아 지역의 1인당 소비량이 140kg인 반면, 미국은 20kg, EU는 10kg 정도이다.

연간 소비량은 1980~1992년에 평균 2.7%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1.2%로 추이가 완화되었다. 아시아 지역에는 최대의 소비국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가 위치하고 있지만, 소비 증가율은 평균 이하이다. 중국과 태국의 1인당 소비량은 감소 추세이지만, 인도(2.1%)와 인도네시아(1.7%)의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쌀 소비량은 연평균 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인구 대비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인당 소비량 증가율은 0.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의 소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증감이 별로 없고, 북아메리카에서는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1992년 이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EU의 총소비량과 1인당 소비량은 1992~2002년 동안 2% 정도씩 증가해 왔다.

쌀의 경우는 주요 소비국이 주요 생산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 추이는 소비량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약간 낮은 편이어서 1980~1992년에는 2.4%씩 증가하다가 1992~2002년에는 1.1%로

낮아졌다.

최상위 생산국들 간에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태국의 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고,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약간 생산량이 늘고 있지만 중국은 생산면적 감소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 일본의 생산량도 줄어들었다. 아프리카의 연간 생산량도 3%씩 증가하고 있지만 1992년 이후에는 단위 수확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브라질의 생산량이 1980~1992년보다 1992~2002년 동안 오히려 증가했다.

미국의 1992~2002년 생산량은 1980~1992년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1998년 이후 단위 수확량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반면 EU의 연간 성장률은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역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했고 최근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상위 5개국의 생산량과 수요량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교역량은 총 생산량의 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시아 지역이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이다. 태국은 2003년 1,000만 톤(백미 기준)을 수출했고, 여전히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다. 태국의 뒤를 이어서 인도와 베트남의 수출량이 가장 많다. 하지만 인도의 수출량은 1~600만 톤으로 변동이 심하고, 베트남의 수출량은 최근 400만 톤에 이르렀다. 중국은 1997년 이후 2~300만 톤을 수출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크게 감소하여 수출량이 많지 않다. 미국과 파키스탄은 각각 300만 톤과 200만 톤 정도를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수입국 중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최상위 4개국이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쌀 수입량은 0.7~600만 톤으로 극심한 편차를 보였다. 나이지리아의 수입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200만 톤을 수입하여 필리핀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수입국이 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등도 100만 톤 정도를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2.3.2. 쌀 전망

FAPRI는 아시아의 도시화, 소득 증가, 주식 다양화 등으로 최근의 1인당 쌀 소비 감소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전체 소비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생산량은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고, 수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 증가량 중 대부분은 태국과 베트남의 수출 증가에 기인할 것이며, 인도 역시 수출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과 파키스탄은 현재의 수출 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중국의 1990년대 후반의 수준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2014년경에는 4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나이지리아의 수입 역시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방글라데시의 수입량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필리핀과 중동의 세 수입국(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의 수입량 역시 2014년에 각각 1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2.4. 육류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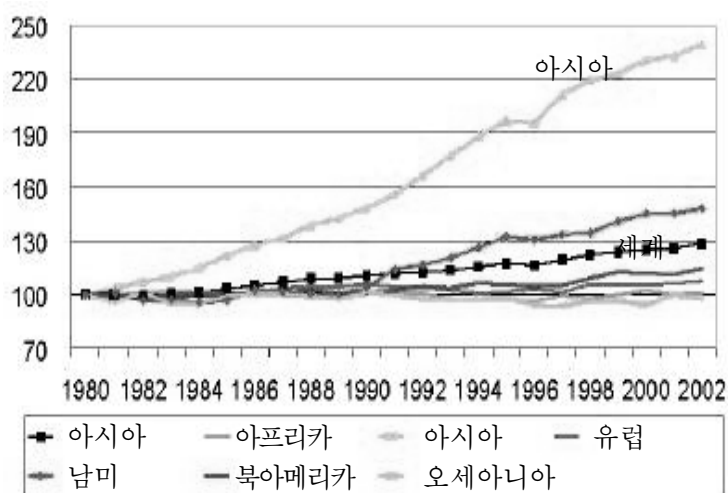
육류 부문에서는 과거의 추이를 보면 예상 소비량과 향후 전망을 상당히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육류 부문의 불확실성이 적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질병 등이 발생하면 생산자 소득이나 교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머지않아 소비·수출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 일부는 지속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이 된다.

많은 순수입국에서 육류 수요가 늘어나면서(그림 2)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늘어나고 가격도 상승했다. 물론 해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아시아로 일인당 소비는 지난 25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나, 두 번째로 성장이 큰 지역이 라틴 아메리카(60%)를 훨씬 상회한다. 부문별로는 쇠고기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금육의 성장률이 가장 높다.

그림 2 1인당 육류 소비량 증가(지수 1980=100)



2.4.1. 쇠고기

세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980년대에는 비교적 일정했으나 1990년대 초 정점에 이르렀고 이때부터 점차 감소해 왔다. 유럽 지역의 소비량, 특히 전 소비에트 연방의 소비량은 1991년부터 급격히 감소했고, 그나마 소비량이 증가한 아시아 지역도 그 정도가 미미했다. 아시아 지역의 일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아프리카보다도

낮은 편이다 북아메리카의 일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아시아 소비량의 10배, 유럽은 4배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지역의 쇠고기 소비량이 증가 잠재력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계 쇠고기 생산은 소비 양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고, 유럽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의 쇠고기 생산량 증가는 중국의 생산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큰데, 중국의 쇠고기 생산은 1980년대만 해도 미미했지만 최근에는 EU-1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세계 최대의 쇠고기 생산·소비국은 미국으로 지난 25년간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쇠고기 교역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EU가 생산량 감소와 계속적인 질병 발생, 정책 개혁 등으로 인해 순수입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미국은 순수입국으로서의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비록 금액으로는 미국이 순수출국이지만 최근 광우병(BSE) 파동으로 인해 수급 조치가 발동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국 중에는 호주와 브라질이 세계 쇠고기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4.2. 돼지고기

세계 돼지고기 생산은 가금육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생산량(세계 생산량 약 1억 톤)은 가금육보다 오히려 많다.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지난 십년 간 유럽 지역은 소비량이 비교적 일정했고, 북아메리카는 소비량이 약간 증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돼지고기 생산이 수요 소비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돼지고기 교역 비중(5% 미만)은 가금육보다도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1990년대 중반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세계 돼지고기 수출량 중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3 정도인데, 이는 캐나다와

브라질의 수출이 늘어나고 미국이 돼지고기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2.4.3. 가금육

세계 전역의 생산·소비량으로 보면 가금육은 1990년대 중반 이미 쇠고기를 추월했다. 생산·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5%에 가깝고 지난 25년간 한 번도 감소 추이를 보인 적이 없다. 2004년 이전에는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커다란 사건이 없었다.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가 창궐하면서 잠재적인 위기가 생겼고, 이는 사료용 곡물과 지방종자(oilseeds)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생산·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편이고,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1992~2002년 동안 가금 부문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도 하다. 아시아 지역의 생산·소비량은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2.4.4. 육류 전망

FAPRI는 향후 10년간 쇠고기 교역이 170만 톤 규모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아시아, 멕시코, 이집트 등의 교역이 늘어나고, 러시아는 2003년 수입 할당제 도입으로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물량 부족, 경기 침체, 질병 발생 등으로 최근 돼지고기 교역은 잠시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일본, 중국, 멕시코의 수요 증대로 다시 교역량이 증가하여 1백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것인 FAPRI와 OECD의 견해이다.

가금육은 교역량 증가가 가장 큰 폭으로 이루어질 전망인데, 이는 생산 비용이 낮고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선호가 높기 때문이다. FAPRI는 가금육 교역량이 13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수입 수요에 따라서 교역량 변화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3. 농업부문에 대한 EU의 입장

3.1. 핵심 사안

EU는 시장 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제안을 해 왔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제까지의 다자간 무역협상 사상 가장 급격한 농가 관세 감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U는 현행 최고 수준 관세를 60% 삭감을 제안해 왔다.

농업 부문에서 EU의 평균 관세는 23%에서 12%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농가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현재 미국은 가장 농산물 시장이 열려 있는 국가임을 자임하고 있다.

2003~04년 CAP 개혁에 힘입어 EU가 농가에 지급하는 대부분의 직접지불금은 더 이상 시장 왜곡적이지 않고 'green box'에 속한다. 이 과정에서 EU는 교역 왜곡적인 지지 수단을 70%까지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U는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에 대해서도 관세를 감축하고 수입 할당량(import quotas)을 늘릴 예정이다.

3.2. EU의 제안

- 농업 부문 최고 관세에 대해 60% 삭감.
- 낮은 관세에 대해서는 35-60% 수준의 삭감.
- EU의 농산물 평균 관세 46% 감축(22.8%→12.2%): UR 수준에 비해 실질적으로 높은 감축 폭.
- 개도국의 요구와 같이 최대 100%의 관세 적용.
- EU에서 지정하는 민감품목의 수 감소.
-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감축 및 저율관세물량(TRQ) 확대 적용하

여 시장 접근성 개선.

- 무역 왜곡적인 농산물 보조 70% 감축.
- 정해진 기한까지 모든 수출 보조의 철폐.

4. 수출보조에 대한 EU의 입장²⁾

EU는 다른 회원국들이 수출보조 형태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수출보조 완전 철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2004년 6월 EU는 다른 국가들도 철폐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수출보조 철폐를 승인한 바 있다. 모호하지 않고 투명한 방식으로 모든 수출보조를 철폐하겠다는 EU의 의무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수출보조도 세계 시장을 왜곡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모든 정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특히 미국의 식량원조(Food Aid)와 수출신용(Export Credits),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국영무역(State Trading Enterprises)의 투명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1. 수출 신용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민간 부문에서 농산물 수출에 대해 수출신용 프로그램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지원받는 수출신용’을 가장 많이 허용하는 국가이고, 2005년 미국의 수출신용 규모는 61억 \$에 이른다. 이는 분명히 무역왜곡적인 관행이라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EU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신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익을 보고자 하는 수

2) 이 내용은 2005년 12월 16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한 것이다.

출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하여 프로그램에 수반되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 수출신용의 경우 ‘자체적으로 자금을 대는(self-financing)’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4년 기본 협정 (framework agreement)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신용 프로그램이 단기에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4.2. 국영무역기업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는 국영무역기업을 통해서 세계 교역량의 상당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영무역기업은 사기업인 경우에도 인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 기업은 독점 수출권을 비롯한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 특혜는 재정적으로 큰 이득을 줄뿐만 아니라 농산물 무역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4.3 순수하지 않은 의도의 식량 원조

순수한 의도의 식량 원조는 개도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일정 수준의 식량 원조를 할 것을 이번 라운드에서도 확인하고자 한다. 하지만 일부 국가가 식량 원조를 이용하여 잉여 농산물을 처리하고 무역을 왜곡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순수하지 않은 의도의 식량 원조 역시 개발도상국의 생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현물’ 식량 원조(in-kind food aid)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국가인 미국 (2003년 26억\$)은 인도적인 차원 외의 목적으로 식량 원조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미국은 ‘현물’ 식량 원조에 사용하는 금액의 60%를 자국의 농민과 물류 기업에 환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EU는 미국이 현물이 아닌 현금에 기초한 식량 원조를 통해서 인도적인 식량 지원을 함과 동시에 시장 왜곡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원하고 있다.

출처: EU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